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여십시오. 바울이 1장에서 시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시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헬라인)들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미려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야외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 군중 속에 아주 웃을 잘 입고 품위 있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설교를 끝내자마자 다가와 그의 명함을 한 장 주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 명함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불가지론(不可知論) 사상으로 잘 알려진 사람 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그의 불가지론을 강연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조롱하였습니다. 그의 명함 뒷면에는, 오는 토요일 밤에 아이언사이드 박사와 공개토론을 하자는 도전이 적혀있었습니다. 그가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면서 불가지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수백 명이 있는 강대상 앞에 다시 서서, 그는 그 군중들에게 그 명함과, 불가지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토론을 하자는 그 사람의 도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도전과 토론을 수락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술 중독과 방탕한 삶으로 인해 그의 삶의 기로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파괴되었다가 이 사람의 불가지론의 강연을 들은 결과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매춘과 마약 등으로 인해 삶이 파괴되었다가 이 사람의 불가지론에 관해 말하는 강연을 듣고 그녀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깨끗하고 매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백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백 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그냥 서 있다가 손을 내저으며 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인 불가지론으로선 한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당시 아덴은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레오바고(Areopogus)에서 모이곤 했습니다. 헬라는 철학자들과 세상적 지혜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에 관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이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려한 것을 택하사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2장에서 고린도인들에게 1장에서와 똑 같은 관념, 즉 십자가에 관하여 십자가의 전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과,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하여 쓰고 있습니다.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얻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웅변술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듣고 돌아갈 때에, 그는 놀라운 연설가라고 말하며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말로 유혹하거나, 어떤 지혜로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증거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2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주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단순한 메시지를 너희와 나누는 것만이 나의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훌륭하고 넘치는 능력으로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까지 바울이 간 곳마다 소동으로 끝났음을 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성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를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베뢰아에서는 소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바울을 서둘러 내쫓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보통 그랬던 것처럼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재판 자리 앞으로 데려왔고 재판장이 그 사건을 기각시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당신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일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힘 있는 웅변가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웅변술로나 말의 능력으로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은 얇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추리적인 능력으로 당신을 떠나가게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설득되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또한 떠나도록 설득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언사이드 박사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어두움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어 지금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6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정말로 세상의 지혜를 별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주나 관원들의 지혜는 없어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점은 역사가 거의 다 증거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지혜, 레닌의 지혜를 채택한 소련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없어집니다.

7오직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제 여기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대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전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 볼 때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사용하는 비밀이란 말은, 어떤 범죄 영화에서 누가 범인인지 그 비밀을 풀려고 궁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비밀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용하는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밀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멸시받고 버린바 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비밀이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실제 죽음에 의해 계시된,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다스리심과, 그분의 능력과, 변화된 세상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모순 되는 것 같지만, 메시아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손과 발을 찢렸고, 그분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십자가 형 당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어린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 곧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8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것은 이 비밀인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진실로 이해했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명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진실로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고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9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신은 이 구절을 천국으로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움,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에 대한 흥분함,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압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역시 그것은 천국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사실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의 무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10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죄의 용서와, 영생의 소망, 성령 안에서 행하며, 영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산다는 것들을,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꿈꾸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의롭다함, 구속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참으로 누가 압니까? 당신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비밀된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 사람의 일들을 진실로 압니까? 단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압니다.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영은 거역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들을 압니다.

요한 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그들과의 마지막 교류, 곧 주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아침이 되기 전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셨던 그 날 저녁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떠나가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과 십자가 처형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였던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야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 같은 대화에서 말씀하시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후 다락방에서 겿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 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 우리의 교사가 되시어 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3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공부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고린도서에 관한 주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특정한 구절들에 관하여 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지혜로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주석을 읽으면서 더 혼동이 되어서 그 책을 옆에다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신령한 것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이 문단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려고 노력한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여 진리가 밝혀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두기보다 세상적 지혜로 접근하고 그들의 지혜로 감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14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사이의 다른 대조를 봅니다. 육체의 본성을 가진 육적인 사람 즉, 당신이 거듭나기 전의 당신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라.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체에 의해 지배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과 대조할 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땅에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사람 대 영의 생각의 사람.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일들은 그에게

수수께끼입니다. 당신이 칭의에 대하여, 대속에 대하여,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해 제공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그는 그것을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의 일들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사실상 그들에게겐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는 그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는 캐나다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려 왔을 때 농가의 이층에 있었습니다. 한 침입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그의 아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침입자를 보았고 그를 잡아서 뒷문으로 내던지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의 뒷문 층계 밑에서 얼어 죽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경찰서로 가서 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자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재판 날이 정해졌고 그 사건 경위에 대한 모든 조사 보고의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그 재판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한 일은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과 증거들은 이 법정에서 정당화되어졌으므로 다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마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정당화(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기록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우리의 고소장들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 기록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섭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5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이란 아마도 불충분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며, 그 개념은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것들을 이해합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 대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과 고투하고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관심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갖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술도 안 마시고, 파티도 안하고 여자들을 쫓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삼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부요하고 총만하며 완전하여서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평강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 내 아들 중 한 아이가 나에게 정년퇴직할 것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직선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와이로 가서 테이프를 만들고 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의 집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강행합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계속 많은 시간을 일하세요? 정년 퇴직하는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년퇴직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 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사는 것.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위의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과 얼마나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헬라어로는 kenosis(케노시스)로서 주님은 자기자신을 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다시 보면, 그가 한 때 가졌던 모든 것들, 그의 야망과 그가 성취했던 목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사이에서의 그의 지위, 유대교의 지도자 단체 중 하나인 산헤드린의 회원, 율법에 순종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 한 때 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제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유대인 중에서의 그의 지위와 명성,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의 그 모든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과,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단순한 메시지를 위해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했습니다. 해로 여긴 것들이 주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죽어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단순한 메시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

아버지, 오늘 밤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메시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메시지의 변화시키는 능력, 당신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에서 당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허한 옛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만한 가치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갈 때, 이 어두움 안으로 당신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저들이 나아갈 때 당신의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알려지고 읽혀지는 살아있는 서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빛이 매우 빛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